



특허청

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7.(수) 09:00	배포 일시	2022. 12. 7.(수) 08:30
담당 부서	정보고객지원국 정보시스템과	책임자	과장 최일승 (042-481-5099)
		담당자	서기관 이진 (042-481-5494)

온라인 특허심판 서비스, 더 똑똑해진다!

- 특허청, 내년부터 『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』 구축 추진 -

□ 특허청(청장 이인실)은 내년부터 3개년간 심판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『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*』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* 2002년 개발된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사업

- 3개년간('23년~'25년) 대민 서비스 고도화, 심판방식 고도화, 심판 심리 지원 강화, 심판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서 1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.
- 우선, 1차년도인 내년에는 총 40.5억원을 투입하여 대민서비스 분야와 심판 방식업무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.

□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,

- 첫째, 심판서류 작성과 증거 제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- 먼저, 심판서류 작성 시에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청구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고, 서류의 흠결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.
 - 또한,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었던 동영상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, 그동안 불편을 초래했던 입증서류 첨부 기능도 개선한다.

- 의도치 않은 입력 실수를 예방할 수 있어서 서류의 흠결로 인한 보정 또는 청구서 각하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둘째, 온라인 서류 송달 및 열람 기능을 개선한다.
 - 우편으로 발송되던 대용량 서류를 온라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, 특허로에서 서류를 수신할 수 있는 기간도 4일에서 상시 수신으로 개선된다.
 - 또한, 온라인 사건 조회 기능 개선을 통해, 통지서 보관기간(90일)이 경과하거나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별도로 서류 열람 신청을 하지 않고 특허로에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.
 - 우편 발송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특허고객의 서류 열람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셋째, AI 기술을 적용해 심판 방식업무를 자동화할 계획이다.
 - 심판 방식업무는 130여종의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인데, 이미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의 종류가 다양해 방식 심사관의 육안에 의한 점검에 의존해 왔다.
 - 특허청은 첨부서류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하는 데 AI 및 OCR 기술을 적용하여 방식심사를 자동화한다.
 - AI 기술이 적용되면 심판 방식업무가 대폭 경감되고, 향후 출원 및 등록분야의 방식업무에도 확대·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“20년 전 첫발을 내딛었던 온라인 특허심판시스템이,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똑똑한 특허심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붙임

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계획

□ 3개년 추진계획

추진전략	중점과제	23년	24년	25년
▶ 대민 서비스 고도화	① 심판서류 작성 편의성 개선 ② 증거의 온라인 제출 방식 개선 ③ 디지털 송달체계 구축			
▶ 심판 방식 고도화	④ 제증명시스템(서류철 열람/복사) 고도화 ⑤ AI 기반 심판 방식업무 자동화			
▶ 심판 심리지원 강화	⑥ 심결문 점검·지원 시스템 구축 ⑦ 심리 지원 및 증거관리 기능 개선 ⑧ AI 기반 유사 심·판결문 자동 추천			
▶ 심판 인프라 강화	⑨ 인터넷 영상구술·설명회 시스템 구축 ⑩ 심판 시스템 성능 개선 ⑪ 외부기관 연계 강화			

□ 2023년 주요 추진 내용

과제명	주요 내용
▶ 심판서류 작성 편의성 개선	<p>현황 심판서식(135종)이 출원서식과 혼재, 기재항목 오작성 가능성</p> <p>과업 ① 분산된 심판 관련 서식 '심판' 카테고리 통합 및 종류별로 그룹화, ② 서식항목, 입증서류, 첨부서류 등 단계별 서류 작성, ③ 특허넷 DB 연계 가능한 기재사항 자동 입력, ④ 기재사항 흠결 자동 점검</p> <p>기대효과 심판서식 접근용이성·작성편의성 개선, 보정명령 등 행정절차 감축</p>
▶ 증거의 온라인 제출방식 개선	<p>현황 멀티미디어(동영상) 증거 제출 불가, 다수 증거 첨부 번거로움</p> <p>과업 ① 동영상 증거 온라인 제출 및 부분 송달, ② 파일첨부 편의성 개선 (복수증거 한번에 첨부, 끌어서 놓기[드래그앤드랍], 서류명 자동입력 등), ③ 특허넷 연동해 서증정보 자동 부여 및 증거파일 내 서증정보 삽입</p> <p>기대효과 증거제출 편의성 개선, (심판관) 증거 관리 및 조회 편의성 향상</p>
▶ 디지털 송달 체계 구축	<p>현황 대용량 서류·미수신 4일 경과시 우편발송(연3만건)⇒반송·민원 증가</p> <p>과업 ① 대용량 서류 온라인 부분송달, ② 4일 경과 송달서류 온라인 항시 수신</p> <p>기대효과 온라인 송달률 개선, 재발송 우편요금 및 종이 출력비용 절감</p>
▶ 서류 열람/복사 고도화	<p>현황 온라인 통지서 열람기간(90일)·대상서류(온라인)·주체(수신자) 제한</p> <p>과업 ① 기간 제한없이 통지서 열람 가능토록 저장방식 개선, ② 열람 제한 기능 개선(수신자가 아닌 당사자 열람 가능, 우편 송달 통지서 열람 기능)</p> <p>기대효과 심판 당사자의 심판 통지서에 대한 온라인 접근 편의성 개선</p>
▶ AI 기반 심판 방식업무 자동화	<p>현황 모든 심판서류의 첨부서류를 육안으로 확인 ⇒ 방식업무 비효율</p> <p>과업 ① AI·OCR기술 적용, 첨부서류 분류 및 항목 추출 자동화, ② 심판서류별 형식적 요건 심사를 위한 점검 룰 완비를 통한 기재요건 흠결 자동 점검</p> <p>기대효과 심판 방식업무 자동화에 따른 업무 생산성 향상</p>